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금 규¹⁾ 김 유 정²⁾ 박 유 경³⁾ 이 강 이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의 4차년도 자료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6.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아동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역량을 매개로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교육 주체인 어머니의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에 주목한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개입 방안과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사회적 지원, 사회적 역량,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 어머니

* 해당 과제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7S1A5B8A02072579).

이 논문은 2022년 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내용을 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4)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E-mail: kangyil@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은 가정 내에서의 학습을 경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시하게 된 비대면 원격수업은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부모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Gouëdard, Pont, & Viennet, 2020). 구체적으로 부모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분담했던 자녀돌봄,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다양한 임무를 가정에서 한꺼번에 수행하게 되었으며(이보람, 2020), 자녀의 학습 집중을 위해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과 습관을 조성해주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김영선, 이재림, 최정아, 2021). 코로나19 시기에 일상화된 비대면 원격수업 방식은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상시적인 교육 형태로서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원격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오영범, 2021; 주현정, 정유선, 2022; 최서연, 2022), 가정에서의 원격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침서가 제작 및 배포되기도 하였다(Dong, Cao, & Li, 2020). 앞으로도 지속될 수업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업에 필요한 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및 문화적 여건과 관련한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 행동을 포함하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심미옥, 2003; Hill & Tyson, 2009)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교육지원 행동으로는 가정에서의 공

부 분위기 조성, 학교 공부와 숙제 확인, 교육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이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이보람, 이강이, 2021; Hidayah & Mahmudah, 2021)에서는 그 현황을 살펴보거나, 주로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령, 부모의 교육지원 유형은 자녀의 학교 적응(노보람, 박새롬, 박혜준, 최나야, 2020)이나 학습을 계획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김현숙, 2021)과 같은 아동과 관련된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가정, 학교 맥락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 높을수록 교육 관여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ohl, Lengua, & McMahon, 2000),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에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및 교사의 역할(Epstein & Van Voorhis, 2001),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정은화, 이강이, 2021)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와 관련한 부모의 개인 내적 심리적 요인이나 부모의 참여 요인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학부모교육 참여(안정찬, 박치형, 2018), 그리고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 갈등(박새롬, 홍예지, 이강이, 2020)이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합했을 때, 선행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심리적 요인, 가정 및 학교로부터 받는 지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의 관계를 주로 밝혔다.

이때,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가까이 지내는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머니들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주변 어머니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어머니가 주변에서 얻는 정보와 조언 등의 자원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드러났다(이민지, 오지현, 2022). 사회적 지원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물질적인 지원으로써(Dunst & Trivette, 1990)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원과 부모의 양육 관련 행동과의 관련성을 논의해왔다(박영애, 원효중, 2003; 신혜진, 한인영, 2011; 정유진, 최미숙, 2016).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기술을 포함한 생활환경 맥락이 부모의 자녀 학습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oover-Dempsey & Sandler, 2005).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 지원 활동이 장려되며(Wellman & Wortley, 1990), 부모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원받을 때 학령기 자녀의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해 가정에서 지원하는 활동의 수준이 증가했다(Sheldon, 2002). 이때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인상이나 특정적인 맥락을 제시하지 않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해 이 연구는 부모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주변 사람에게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의

행동을 변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내적 요인인 부모 역량과의 관련성을 보고했다. 박새롬 등(2020)은 부모역량 중 하나인 양육 역량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감소로 이어짐을 밝혔으며, 어머니의 양육 역량에 따라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노보람 등, 2020). 권미경, 박원순과 엄지원(2016)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내 양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역량 또한 높아졌음이 밝혀짐에 따라(이수현, 이강이, 이재림, 김영선, 유예진, 2018),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간 관계에서 핵심 요인으로 부모의 개인적 역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부모의 양육 역량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 효능감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와의 협력을 포함한다(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그중 사회적 역량이란 여러 가지 지식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통합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정계숙, 노진형, 2006),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부모 역량은 부모를 둘러싼 사회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Ogbu, 198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은 사회적 지원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이유리, 홍정순, 2016) 부모의 역량 중 사회적 역량에 특정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을 살펴본 기존

의 연구들은 부모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부모의 개인 내적 요인 각각의 관련성만을 다루었을 뿐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사회적 역량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사회적 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사회적 역량과 관련한 구체적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때 초등학교 4학년은 초기 청소년기로의 전환기로(최유선, 손은령, 2015), 자녀는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증가하고,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시기이다(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로서, 아동은 학습 내용의 심화와 양적인 증가를 경험한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자녀 발달 환경 관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은 부모 중 어머니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며(손준중, 2009), 고학년 전이기의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활동 또한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박소진, 2009),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양적, 질적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이 어

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이, 이재림, 그레이스 정, 김영선, 2020).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영선 등, 2021)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이 일상화된 시기에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구축한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의 4차년도(2020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 응답한 어머니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부모교육 참여 특징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목표 모집단은 2017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에 근거해 지역별로 할당표집 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0.9세이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7.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자녀 수는 2명(57.2%), 1명(30.6%)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399만 원(23.7%), 400~499만 원(22.1%)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49.3%), 사무직(24.3%)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했던 시기인 2020년에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인 부모의 가정 교육지원 활동에 관심을 두어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308명의 어머니가 연구의 주요 변인에 모두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된 자료는 없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08)

특성 및 구분	빈도 (%)		특성 및 구분	빈도 (%)	
어머니 연령			월평균 가구 소득		
35세 이하	13	(4.2)	299만 원 이하	51	(16.6)
36세 ~ 40세	136	(44.2)	300 ~ 399만 원	73	(23.7)
41세 ~ 45세	125	(40.6)	400 ~ 499만 원	68	(22.1)
46세 이상	34	(11.0)	500 ~ 599만 원	50	(16.2)
평균	40.9세		600만 원 이상	66	(21.4)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고졸 이하	43	(14.0)	판매직	13	(4.2)
2 ~ 3년제 초대졸	84	(27.3)	기술직	7	(2.3)
4년제 대졸	176	(57.1)	사무직	75	(24.3)
대학원 졸	5	(1.6)	서비스직	35	(11.4)
자녀 수			고위관리직/전문직	9	(2.9)
1명	70	(30.6)	단순노무직	6	(2.0)
2명	131	(57.2)	전업주부	152	(49.3)
3명 이상	30	(12.2)	자영업/프리랜서	11	(3.6)

2. 측정도구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모가 주변인들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물리적, 평가적 지지를 측정하는 박지원(1985)이 제안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정보적 지지’ 문항을 부모 역할, 교육 관련 선택 상황 등 자녀 양육 및 교육의 구체적 맥락을 함께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속 주변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 행동을 측정하여 학습이 심화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인 4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받는 조언 및 정보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등 총 6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 6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 참 역량 척도에서 부모 역량 중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를 활용하여 ‘주변자원활용’ 3문항, ‘주변환경조절능력’ 3문항, ‘공동체정신’ 3문항, ‘사회봉사하기’ 3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거나 주변을 통해 필요한 정보 및 도움을 찾고자 하는 의지 및 능력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의 문항 예시로는 주변자원활용은 “나는 내 주변에서 자녀양육(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찾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주변환경조절능력은 “나는 자녀양육(교육)에 관련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공동체정신은 “나는 자녀양육(교육)과 관련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사회봉사하기는 “나는 자녀양육(교육)과 관련한 더욱 뜻 있는 사회봉사의 실천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역량 12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가정 교육지원 활동은 심미옥(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학부모교육참여패널에서 ‘가정학습지원’으로 개념화 및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분위기 조성’ 3문항, ‘학습지도’ 5문항, ‘생활통제’ 4문항, ‘시간통제’ 3문항, ‘정보수집 4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으로 6개 하위요인, 총 2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업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등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 학습분위기 조성은 “자녀가 공부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학습지도는 “자녀가 공부할 때 함께 앉아서 직접 가르

친다”, 생활통제는 “친지방문, 손님 초대는 자녀의 공부나 시험기간을 피해 계획한다”, 시간 통제는 “자녀의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지키도록 한다”, 정보수집은 “좋은 학습지, 참고서, 학원에 대해 알아보려 애쓴다”, 문화적 경험은 “일상생활문제, 시사문제와 관련해서 도움 되는 내용을 자녀에게 설명해준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자녀에게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23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5였다.

통제변수

이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구명숙, 홍자숙, 2005)와 부모가 모두 취업하여 자녀와 함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교육적 관여 측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변수용, 김경근, 2008; Coleman, 1998; Stevenson & Baker, 1987)를 토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추가로 자녀의 성별이 여자일 때 부모는 교육적 관여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신혜진, 2019; Manz, Fantuzzo, & Power, 2004) 아동의 성별을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

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6.0,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연구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과 Hayes(2022)의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선택하고 95%의 신뢰구간과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의 기초 통계 분석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N = 308)

변인	1	2	3	4	5
1 아동 성별	1.00				
2 어머니의 취업여부	.00	1.00			
3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01	.00	1.00		
4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05	.02	.37***	1.00	
5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15**	-.16**	.27***	.40***	1.00
평균	-	-	3.70	3.41	3.44
빈도(%)	164(53.2)	144(46.8)	-	-	-
표준편차	.50	.50	.52	.59	.45
왜도	.05	-.03	-.46	-.33	.07
첨도	-2.01	-2.01	.78	.49	.42

주. 아동 성별 : 0 = 여, 1 = 남. 어머니의 취업여부 : 0 = 취업모, 1 = 비취업모.

** $p < .01$. *** $p < .001$.

여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할 결과, 적정한 값(왜도 < 2, 첨도 < 4)을 보여,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 (Hong, Malik, & Lee, 2003).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인의 전체 점수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r = .37$,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r = .27$, $p < .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또한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r = .4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수준 및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또한 유의하게 높

아짐을 의미한다.

2.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정 내 교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향하는 회귀 모형($F = 16.60$, $p < .001$)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향하는 회귀 모형($F = 21.87$,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은 14.1%(adj R^2 은 13.2%),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은 22.4%(adj R^2 은 21.4%)로 나타났다. 앞선 회

표 3.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N = 308$)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F	R^2 (adj R^2)
사회적 역량	(상수)	1.81	.23		7.91***		
	아동 성별	.06	.06	.05	.96	16.60***	.14 (.13)
	어머니의 취업여부	.02	.06	.02	.28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42	.06	.37	7.00***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상수)	2.56	.18		14.36***		
	아동 성별	.14	.05	.15	2.80**	14.40***	.12 (.12)
	어머니의 취업 여부	-.15	.05	-.16	-3.04**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24	.05	.27	5.15***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상수)	2.08	.18		11.29***		
	아동 성별	.12	.05	.13	2.63**	21.87***	.22 (.21)
	어머니의 취업 여부	-.15	.05	-.17	-3.32**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13	.05	.15	2.75**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26	.04	.34	6.24***		

** $p < .01$. *** $p < .001$.

표 4.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간접효과 (사회적 지원→사회적 역량→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11	.03	.06	.17

주. 아동 성별: 0 = 여, 1 = 남. 어머니의 취업여부: 0 = 비취업모, 1 = 취업모.

** $p < .01$. *** $p < .001$.

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 사이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 참조).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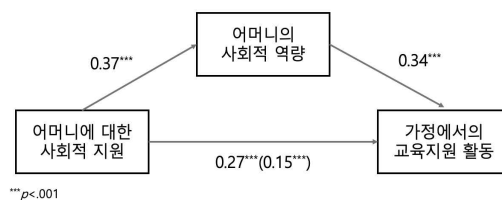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및 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역할도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부담이 가중된 고학년 전이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어머니의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과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역할 간의 관련성을 밝혀 교육 현장 및 부모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역할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두 가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맥락에서 부모가 스스로 지지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학교 참여 동기가 증진된다는 기존

의 보고에서(Walker, Wilkins, Dallaire, Sandler, & Hoover-Dempsey, 2005) 나아가 가정 맥락 내 이들의 관계 또한 맥을 같이 함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 부담의 경감을 통해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등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연구결과(엄미선, 전동일, 2006; 이시연, 최윤정, 2007) 및 자녀 교육에 대해 사회관계망에서 정보, 도움, 호의를 나누는 경험이 많은 부모일수록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보고(신혜진, 한인영, 2011)와 맥을 같이한다. 종합하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모 역할이나 교육 및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보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례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 협력할 수 있는 양육자 자조모임(parenting self-help)을 들 수 있다. 기존에 공동육아, 부모 소모임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차성란, 2012).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또래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나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양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양육행동에서 자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양육자 자조모임을 통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김수정, 이유미, 2021) 이를 위한 지원을 장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모는 자녀의 원격수업 전반을 지원하게 되었다. 자녀가 원격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준비하고,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원격수업을 듣기 전 준비를 하는 등 가정에서는 이른바 ‘엄마 선생님’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으며, 어머니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김영선 등, 2021). 이때 자조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나 고립감을 해소하고 부담감을 나누면서 서로 정보적 측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양육자를 위한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장은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자녀 양육센터에서 놀이 공간과 함께 부모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서소정, 오선진, 하지영, 2013). 양육자 자조모임을 포함하여 부모의 양육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면 부모는 가정 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한다. 이는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수준이 높으며, 높은 사회적 역량의 수준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검증한 매개 구조는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량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얻으며, 교육 현실과 부모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충고를 듣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사회적 역량을 더 발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검증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간 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지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유리, 홍정순, 2016)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이수현 등, 2018)와 유사하다. 더불어 이 연구는 환경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어머니의 자원활용 및 환경조절 능력과 공동체 정신 등의 개인 역량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교육지원 활동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노보람 등의 연구(2020)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취업모의 양육역량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더 적게 제공하였다는 연구(박새롬 등, 2020)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학교와 관련된 자원활용 및 환경조절 능력, 공동체정신과 같은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동기가 된다는 연구(박새롬, 이강이, 2021)와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는 핵가족의 형태가 주를 이루므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회관계망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가 어머니에게 더욱 중요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머니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경험은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봉사 및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조절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원에 주목하여 어머니 개인에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나,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별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파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어머니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주변 환경을 조절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사회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부모의 양육과정에 대입해보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어머니 역량이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에서 발휘된 바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와 함께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수업 및 가정 학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경험 및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종단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두터울수록 자녀들과 가정 내에서 더 많은 교육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진숙, 권희경, 2000) 어머니의 가정 내 교육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변인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교와 가정의 연계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이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송윤희, 2011; 조승연, 임경희, 2021)에서 나아가 교육주체로서 어머니의 교육참여 측면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녀의 특징적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 간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녀의 필요에 부합된 것일 때는 효과가 크지만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일 경우에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전춘애, 윤기봉, 2016) 초등학교 자녀가 인식한 가정 내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정 내 교육 지원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로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갖

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증진함을 보고하며 그 경로에서 양육 부담이나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심리적 측면을 강조해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양육역량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 내적 자원인 사회적 역량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어머니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졌으며, 그 통로를 통해 얻는 정보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를 포함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사회적 지원과 가정 내 교육지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점은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개입 마련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이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경험을 측정할 때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맥락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원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받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의 행동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및 사회적 역량 증진에 대한 개입의 시도에서 필요할 지원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및 원격수업의 주된 지원자로서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밝혀내어 시사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이 익숙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교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일상적 돌봄 활동 이외에 공부와 숙제와 관련된 학습지도, 감독 등의 양육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김희화, 2005; Stattin & Kerr, 2000)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명숙, 홍자숙 (200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중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4(4), 531-546.
-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 (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doi.org/10.979.1185941/790>
- 김수정, 이유미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자조모임 활동이 부모효능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3(3), 231-250. <https://doi.org/10.36431/JPE.13.3.11>
- 김영선, 이재림, 최정아 (2021). 코로나 19 시기 초등학교 4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경험. *인간발달연구*, 28(3), 139-165.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139>
- 김현숙 (2021). 한부모 자녀의 가정 내 교육적 지원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교육적 경험의 매개효과 및 양부모 자녀와의 다집단 분석. *학교사회복지*, (53), 211-239.

- <https://doi.org/10.20993/jSSW.53.9>
- 김희화 (2005).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개발: 중학생 자녀와 아버지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07-121.
- 노보람, 박새롬, 박혜준, 최나야 (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지원 유형: 예측요인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 적응. *아동학회지*, 41(1), 15-28.
<https://doi.org/10.5723/kjcs.2020.41.1.15>
- 박새롬, 이강이 (2021).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유형에 따른 참여 결정요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28(3), 167-190.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167>
- 박새롬, 홍예지, 이강이 (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3), 165-184.
<https://doi.org/10.15284/kjhd.2020.27.3.165>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사회*, 84, 12-39.
- 박영애, 원효종 (200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713-73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https://doi.org/10.32465/ksocio.2008.18.1.003>
- 서소정, 오선진, 하지영 (2013). 한국의 보육지원체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11-234.
<https://doi.org/10.14698/jkcce.2013.9.4.211>
- 손준중 (2009). 자녀교육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 - 어머니의 역할과 경험을 중심으로 -. *교육문제연구*, 34, 25-58.
- 송윤희 (2011).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18(2), 183-202.
- 송진숙, 권희경 (2000). 가정과 학교간 연계교육을 위한 부모의 가정 내 교육적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33-251.
- 신혜진 (2019).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적관여 군집 유형에 따른 미래인재역량의 차이 및 영향요인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0(1), 1-24.
<https://doi.org/10.15753/aje.2019.03.20.1.1>
- 신혜진, 한인영 (2011).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4(3), 349-374.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안정찬, 박치형 (2018). 기대교육수준이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교육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161-184.
<https://doi.org/10.24210/kapm.2018.32.1.007>
- 엄미선, 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오영범 (2021). 초등학교 원격수업 사례분석을 통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한계. *초등교육연구*, 34(1), 109-139.
<https://doi.org/10.29096/JEE.34.1.05>
- 이강이, 이재림, 그레이스 정, 김영선 (2020).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 학부모의 교육참여 특성 및 변화의 관련 요인.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민지, 오지현 (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33(2), 295-312.
<https://doi.org/10.7856/kjcls.2022.33.2.295>
- 이보람 (2020). 온라인 공교육 시대, 학부모의 인식과 역할.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보람, 이강이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 지원현황.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63-78.
<https://doi.org/10.7466/JFBL.2021.39.2.63>
- 이수현, 이강이, 이재림, 김영선, 유예진 (2018).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인간발달연구*, 25(3), 181-202.
<https://doi.org/10.15284/kjhd.2018.25.3.1>
- 이시연, 최윤정 (2007). 한부모 가족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23-142.
<https://doi.org/10.21479/kaft.2007.15.1.123>
- 이유리, 홍정순 (2016). 성인초기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5(2), 151-165.
<https://doi.org/10.22839/adp.2016.5.2.151>
- 전춘애, 윤기봉 (2016).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교육지원활동 및 도움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2), 85-104.
<https://doi.org/10.15284/kjhd.2016.23.2.85>
- 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가정과삶의질연구*, 32(2), 53-75.
<https://doi.org/10.7466/JKHMA.2014.32.2.53>
-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합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79-105.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유진, 최미숙 (2016).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주관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81-198.
- 정은화, 이강이 (202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 유형-코로나 19 로 인한 초등학교 1학년 온라인 학습상황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3), 317-337.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317>
- 조승연, 임경희 (2021).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육지원활동이 초등학생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술*, 7, 79-115. <https://doi.org/10.33518/HS.7.3>
- 주현정, 정유선 (2022). 지속가능한 대학교육을

- 위한 원격수업 인식 및 요구분석 연구: C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27(1), 25-47.
- 차성란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87-210.
- 최서연 (2022). 초등학교 원격교육에서 다중감각 활용 수업 설계원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233>
- 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4), 157-185.
<https://doi.org/10.15284/kjhd.2021.28.4.157>
- Coleman, J. S.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0.
<https://doi.org/10.1093/oso/9780195159509.003.0007>
- Dong, C., Cao, S., & Li, H. (2020). Young children's online learning during COVID-19 pandemic: Chinese parents' beliefs and attitud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8, 105440.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440>
- Dunst, C. J., & Trivette, C. M. (1990).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in early intervention programs.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326-3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pstein, J. L., & Van Voorhis, F. L. (2001). *More than minutes: Teachers' roles in designing homework*. *Educational Psychologist*, 36(3), 181-193.
https://doi.org/10.1207/S15326985EP3603_4
- Gouëdard, P., Pont, B., & Viennet, R. (2020). Education responses to COVID-19: Implementing a way forward.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224, 1-44.
<https://doi.org/10.1787/8e95f977-en>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https://doi.org/10.1111/jedm.12050>
- Hidayah, N., & Mahmudah, F. N. (2021). Home learning pattern for Indonesian elementary students during COVID-19 pandemic. *Al-Bidayah: Journal Pendidikan Dasar Islam*, 13(1), 91-106.
<https://doi.org/10.14421/al-bidayah.v13i1.610>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40-763. <https://doi.org/10.1037/a0015362>
-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2005). *Final performance report for the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Report No. R305T010673): *The social context of parental involvement: A path to enhanced achievement*. Presented to Project Monitor,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ducation.
- Kohl, G. O., Lengua, L. J., & McMahon, R. J. (2000).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conceptualizing multiple dimens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family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6), 501-523.
[https://doi.org/10.1016/S0022-4405\(00\)00050-9](https://doi.org/10.1016/S0022-4405(00)00050-9)
- Manz, P. H., Fantuzzo, J. W., & Power, T. J.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mily involvement among urba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6), 461-475.
<https://doi.org/10.1016/j.jsp.2004.08.002>
-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A cultural-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2), 413-429.
<https://doi.org/10.2307/1129158>
- Sheldon, S. B. (2002). Parents' social networks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2(4), 301-316.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https://doi.org/10.1111/1467-8624.00210>
- Stevenson, D. L., & Baker, D. P. (1987). The family-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5), 1348-1357. <https://doi.org/10.2307/1130626>
- Walker, J. M., Wilkins, A. S., Dallaire, J. R., Sandler, H. M., & Hoover-Dempsey, K. V. (2005). Parental involvement: Model revision through scale develop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6(2), 85-104.
<https://doi.org/10.1086/499193>
- Wellman, B., & Wortley, S. (1990).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 558-588.
<https://doi.org/10.1086/229572>

1 차원고접수 : 2022.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8. 21.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4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Social Competence**

Lee, Keumkyu Kim, Yoojung Park, Yookyeong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soci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during the COVID-19 perio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on 308 mothers having a child in a transition to a higher grade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PSKPEI) in 2020, and carried out by bootstrapping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 and SPSS Process Macro. Our main findings illustrated that social support for mother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ir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through their social competence. In other words, when mothers have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they tend to have a higher levels of social competence, in turn, leading to better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or mothers on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for their children by placing emphasis on mothers' social competence.

Keywords: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received social support, social competence,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transition to higher grade, mother